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21. 12



충청남도의회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모임 추진현황	3
제2장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	4
제1절 소상공인·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현황	5
제2절 충남 종사자 및 사업체 변화	10
제3장 여건과 전망	25
제1절 서비스산업 혁신과 서비스업 피해 증가	26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2.0	29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33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중점 추진정책	34
제2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방향	38
제5장 제언	44
부록(주요 보도자료)	47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모임 추진현황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
- 실제 많은 연구와 사례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와 정부의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계층 중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의 집단은 소상공인임
- 이에,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실태와 대책 등을 연구·논의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 모임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의 피해현황과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 구체적인 세부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
 - 소상공인·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현황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서비스업 피해 증가
 -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2.0 등 정책동향과 여건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중점 추진정책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

제2절 연구모임 추진현황

■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회장(조승만 의원)

-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 장소 : 충남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발표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과 정책과제(김영기, 소상공인진흥공단 박사)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과 정책과제 논의
 - 소상공인·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현황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정책 등 논의



■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 2차 모임

- 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 장소 : 충남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발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김영기, 소상공인진흥공단 박사)
- 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
 - 충남 주요 지자체 사업체 종사자 특성 논의
 - 최근 정책 여건 및 소상공인 지원방향 등 논의

제2장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

제1절 소상공인·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현황

제2절 충남 종사자 및 사업체 변화

종사자 및 사업체 변화

제1절 소상공인 · 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현황

1.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

■ 소상공인 전반

- ‘21년 2월 체감경기는 43.8로 전월 대비 8.0p 상승, 3월 전망경기는 75.0으로 전월 대비 12.2p 상승
-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인 ‘20년 5월·6월 체감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표 1> 소상공인 경기전반 지수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감	41.5	29.7	73.8	88.3	82.6	68.1	67.6	54.9	78.0	79.9	51.6	35.8	43.8	-
전망	87.1	94.1	95.0	99.5	98.9	89.4	93.2	94.1	95.2	96.8	95.9	89.8	62.8	75.0

■ 소상공인 지역별 경기 체감지수

- ‘21년 2월 기준 소상공인의 지역별 경기 체감지수를 살펴보면, 광주가 50.9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48.5), 강원(47.9), 대전(47.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경남(39.8), 제주(37.5), 경북(35.2)의 체감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충남의 소상공인 경기 체감지수는 42.7로 전국 평균 43.8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소상공인 지역별 경기 체감지수 추이

구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20.11	20.12	21.1	21.2
서울	70.2	40.8	29.4	71.3	88.4	80.1	69.3	65.9	52.2	79.2	77.3	49.4	37.3	42.8
부산	62.3	42.7	34.5	73.4	87.7	81.9	69.3	67.3	56.1	77.9	77.9	47.1	29.4	44.4
대구	65.1	40.3	30.2	78.5	93.6	83.2	72.5	72.1	57.0	71.3	74.3	49.3	36.1	40.4
인천	67.1	45.0	38.9	67.9	83.9	81.4	63.2	65.4	63.6	79.6	76.4	52.9	38.6	47.5
광주	74.6	44.6	36.2	78.1	88.4	82.1	56.7	67.4	57.1	81.3	82.2	52.6	38.5	50.9
대전	67.4	39.4	33.0	78.4	86.7	88.5	61.9	70.2	48.2	79.7	84.2	49.5	36.0	47.7
울산	59.6	42.9	17.7	68.2	81.8	85.4	69.2	75.3	50.0	82.0	76.8	51.0	35.1	45.9
세종	80.0	55.7	22.9	72.9	88.6	87.1	62.9	67.1	55.7	82.5	90.0	66.3	18.6	25.6
경기	64.3	44.4	27.6	72.1	87.7	78.7	65.1	67.4	53.2	80.4	84.9	51.0	38.6	48.5
강원	58.8	29.0	25.2	72.7	85.3	84.9	70.2	67.6	49.2	73.3	78.8	54.2	27.3	47.9
충북	67.5	42.1	28.5	79.4	89.9	87.7	71.1	63.2	56.1	78.7	85.7	53.5	37.4	46.5
충남	67.8	38.4	33.3	74.0	90.3	86.8	69.4	69.8	53.5	74.4	78.7	56.6	37.7	42.7
전북	73.4	38.9	28.3	78.7	79.9	91.8	68.0	63.1	58.6	73.2	83.3	50.8	31.5	45.2
전남	70.3	44.7	32.1	73.6	96.7	78.9	70.3	67.5	56.5	80.1	78.5	54.9	43.9	42.3
경북	64.0	38.3	27.9	74.4	90.6	78.6	72.4	67.5	59.4	76.5	80.1	52.6	34.2	35.2
경남	71.6	45.9	21.6	77.2	91.1	79.6	69.2	68.0	50.6	73.8	76.2	50.3	36.0	39.8
제주	72.7	35.7	37.7	62.3	87.0	83.8	76.0	65.6	63.0	87.7	81.2	50.0	37.5	37.5

2. 전통시장 경기동향 조사

■ 전통시장 전반

- ‘21년 2월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43.7로 전월 대비 10.2p 상승,
3월 전망경기는 68.6으로 전월 대비 0.8p 상승

<표 3> 전통시장 경기전반 지수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감	23.9	28.4	80.0	109.2	79.2	55.7	49.2	65.1	73.3	78.5	44.8	33.5	43.7	-	
전망	79.1	95.0	94.8	104.5	103.2	86.6	88.8	95.2	93.3	99.5	89.1	84.7	67.8	68.6	

■ 전통시장 지역별 경기 체감지수

- ‘21년 2월 기준 전통시장의 지역별 경기 체감지수를 살펴보면,
세종이 54.5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54.0), 광주와 경남(50.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서울(38.2), 대구(37.9), 부산

(34.5)의 체감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충남의 전통시장 경기 체감지수는 43.5로 전국 평균 43.7과 비슷하게 나타남

<표 4> 전통시장 지역별 경기 체감지수 추이

구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20.11	20.12	21.1	21.2
서울	76.7	20.6	23.0	80.7	106.4	73.6	50.7	50.3	63.5	71.6	72.6	42.2	35.4	38.2
부산	67.1	22.2	30.6	69.0	105.1	76.4	54.6	44.4	58.8	65.7	75.0	41.7	33.2	34.5
대구	67.1	20.6	26.5	88.2	119.4	70.0	50.6	43.5	66.5	71.8	78.8	48.8	32.8	37.9
인천	80.1	25.0	24.3	78.7	90.4	65.4	58.1	44.1	58.1	72.8	88.2	41.2	40.8	45.1
광주	81.4	22.5	28.4	87.3	114.7	70.6	37.3	50.0	74.5	74.5	72.5	55.9	35.3	50.0
대전	75.6	25.6	39.7	80.8	125.6	89.7	51.3	51.3	69.2	75.6	78.2	41.0	30.3	39.5
울산	76.4	26.4	39.1	76.4	96.4	83.6	59.1	65.5	61.8	70.9	77.3	47.3	32.7	43.6
세종	65.8	28.9	36.8	94.7	97.4	78.9	60.5	63.2	57.9	76.3	81.6	44.7	27.3	54.5
경기	66.7	22.8	27.2	83.3	128.1	69.7	51.8	47.8	65.8	78.1	75.9	47.8	36.3	54.0
강원	68.6	27.1	31.4	80.0	106.4	91.4	54.3	38.6	65.7	82.1	80.7	32.9	30.3	46.5
충북	67.4	29.7	31.2	76.8	110.1	81.9	65.2	55.1	60.1	79.7	81.2	46.4	31.3	42.5
충남	62.5	23.7	32.9	82.2	105.9	80.9	57.9	48.7	72.4	74.3	84.9	44.7	29.2	43.5
전북	71.0	22.6	26.6	79.8	113.7	87.1	57.3	41.1	69.4	73.4	84.7	46.8	37.9	45.2
전남	85.2	26.4	34.1	85.2	101.1	92.3	57.1	52.2	73.1	76.9	74.7	52.2	42.3	44.5
경북	67.0	26.5	24.0	77.0	114.5	87.0	62.0	43.5	61.5	68.0	77.5	41.0	29.1	38.8
경남	69.4	22.4	20.4	73.0	103.6	75.0	53.6	52.0	66.3	68.4	81.1	43.4	29.2	50.0
제주	73.4	21.3	29.8	83.0	107.4	89.4	77.7	70.2	62.8	77.7	83.0	50.0	27.7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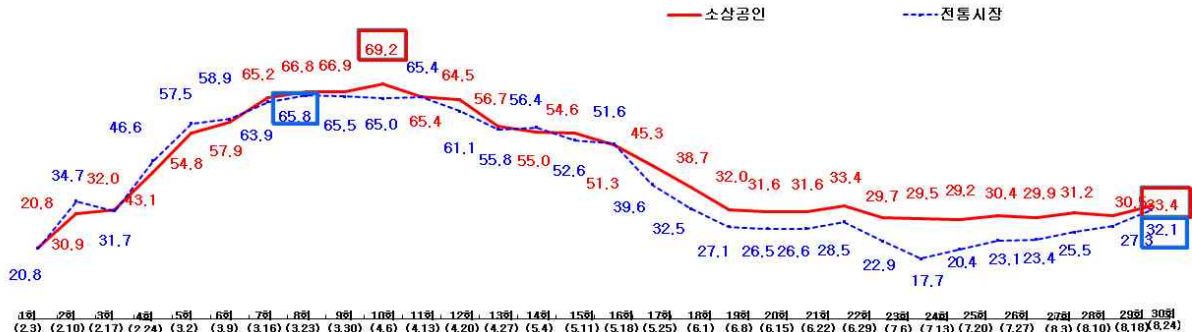
3. 코로나 19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 조사

■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조사 개요

- 목적 : 코로나19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미치는 매출액 영향을 주단위로 패널 조사
- 조사대상 : 소상공인 사업체(약 280여개) 및 전통시장(약 210여개 시장)

■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 발생 추이

-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3회 차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 4월 6일 10회 차 조사에서 코로나 발생 전보다 매출감소율이 소상공인 69.2%, 전통시장 65.0%로 정점



<그림 1>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감소를 추이

4. 소상공인·전통시장 일 매출 동향

■ 캐시노트 동향조사 개요

- 분석대상 : (주)한국신용데이터 캐시노트 65만개 사업체 중 16만개 (5개업종) 및 전통시장 내 점포 1.1만여개
- 활용자료 : '19.12.5주차와 '20.12.30~31일 신용카드 결제액

■ 소상공인·전통시장 일 매출 동향

- '20년 12월 30일 기준 소상공인 일 매출은 전년 동 주간 (19.12.5주차) 대비 0.538 수준이며, 전통시장은 0.711 수준임
- '20년 12월 31일 기준 소상공인 일 매출은 전년 동 주간 (19.12.5주차) 대비 0.569 수준이며, 전통시장은 1.146 수준임



<그림 2> 캐시노트 소상공인·전통시장 일 매출 동향 추이

■ 코로나 유행시기별 캐시노트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변화

- 코로나 유행시기별 전년 대비 카드매출액 감소
- 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의 전년대비 카드매출액 : (1차) 100.2%, (2차) 89.9%
- 코로나 유행시기 전년대비 카드매출액 : (1차) 79.9% → (2차) 83.7% → (3차) 69.5%



구분		전년대비 카드매출액 비율
유행	1차	79.9%
	2차	83.7%
	3차	69.5%
비유행기		92.5%
'20년 평균		89.0%



<그림 3> 코로나 유행시기별 캐시노트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추이

제2절 충남 종사자 및 사업체 변화

1. 충청남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충청남도의 사업체 수 증가율은 제주도,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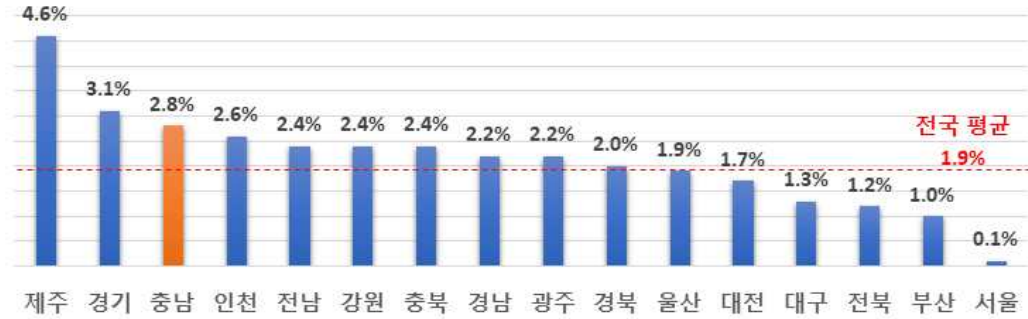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사업체 수는 '19년을 기준으로 176,643개이며, 최근 5년 간 연평균 누적 증가율은 2.8%로 전국 평균 1.9%보다 0.8%p 높은 수준
- 증가폭은 제주도(4.6%), 경기도(3.1%), 충청남도(2.8%), 인천광역시(2.6%) 순

<표 5> 지역별 사업체 현황('15~'19; 개, %)

지역	'15	'16	'17	'18	'19	CAGR
전국	3,874,156	3,950,169	4,019,872	4,103,172	4,176,549	1.9%
경기	827,983	856,162	878,275	909,032	934,349	3.1%
서울	820,658	820,156	822,863	823,385	823,624	0.1%
부산	278,850	283,554	286,571	288,860	290,357	1.0%
경남	262,947	268,902	274,490	281,685	286,752	2.2%
경북	218,795	222,536	226,079	232,030	236,807	2.0%
대구	200,069	205,318	209,376	210,547	210,944	1.3%
인천	186,011	191,566	196,705	202,493	206,244	2.6%
충남	158,306	161,608	166,247	172,242	176,643	2.8%
전남	147,196	149,713	153,280	156,914	161,883	2.4%
전북	146,652	147,502	148,269	151,011	154,082	1.2%
강원	133,517	136,452	140,058	143,475	146,815	2.4%
충북	121,493	124,834	126,224	129,920	133,522	2.4%
광주	113,424	116,046	118,409	119,617	123,706	2.2%
대전	111,815	113,228	115,423	117,557	119,628	1.7%
울산	80,805	82,948	83,872	85,662	87,054	1.9%
제주	55,155	57,791	60,063	62,871	66,098	4.6%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 천개)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4> 지역별 사업체 연평균증가율('15~'19)

■ 충청남도 창업기업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

- 충청남도의 창업기업 수는 '20년을 기준으로 58,166개이며, 최근 5년 간 연평균누적증가율은 5.9%로 전국 평균 5.7%보다 0.2%p 높은 수준
- 증가폭은 인천광역시(9.1%), 경기도(7.7%), 서울특별시(6.5%)와 같은 수도권 중심

<표 6> 지역별 창업기업현황('16~'20; 개, %)

지역	'16	'17	'18	'19	'20	CAGR
전국	1,190,177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5.7%
경기	321,234	344,860	378,899	361,001	431,992	7.7%
서울	240,617	249,581	289,280	262,970	309,896	6.5%
인천	68,527	75,594	79,350	79,719	97,059	9.1%
부산	72,442	75,142	75,496	74,132	86,597	4.6%
경남	74,318	73,530	71,525	69,496	75,084	0.3%
경북	54,948	56,951	57,272	56,002	58,749	1.7%
충남	46,162	49,836	51,567	51,032	58,116	5.9%
대구	49,924	50,295	51,313	51,445	55,782	2.8%
전북	37,040	45,253	48,441	44,073	46,748	6.0%
전남	37,526	42,683	45,682	42,854	46,390	5.4%
강원	34,694	35,629	36,335	35,468	41,330	4.5%
충북	34,382	34,656	35,704	36,830	40,749	4.3%
광주	31,763	33,377	35,627	35,065	39,333	5.5%
대전	31,063	31,953	32,967	33,628	39,330	6.1%
울산	24,499	24,833	23,080	22,760	25,388	0.9%
제주	21,476	21,702	22,091	19,938	21,569	0.1%
세종	9,562	10,392	9,737	8,846	10,555	2.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1, 창업기업동향.

(단위 : 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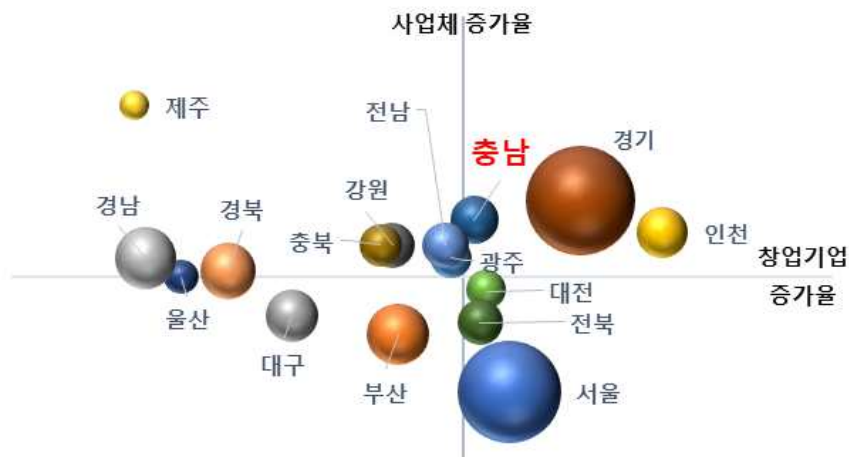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1, 창업기업동향.

<그림 5> 지역별 창업기업 연평균증가율('16~'20)

■ 충청남도는 창업이 많고 상대적으로 폐업이 적은 지역

- 충청남도는 사업체 수의 증가율과 창업기업 증가율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전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 지역별 현황 분석을 위하여 2×2 Matrix(X:창업증가율, Y:사업체 증가율, 원의 크기:사업체 수)를 구성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1, 창업기업동향을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그림 6> 2×2 Matrix 분석결과

<표 7> 2×2 Matrix 분석결과(% 천개)

지역	창업증가율	사업체 증가율	사업체 수
서울	6.5%	0.1%	824
부산	4.6%	1.0%	290
대구	2.8%	1.3%	211
인천	9.1%	2.6%	206
광주	5.5%	2.2%	124
대전	6.1%	1.7%	120
울산	0.9%	1.9%	87
경기	7.7%	3.1%	934
강원	4.5%	2.4%	147
충북	4.3%	2.4%	134
충남	5.9%	2.8%	177
전북	6.0%	1.2%	154
전남	5.4%	2.4%	162
경북	1.7%	2.0%	237
경남	0.3%	2.2%	287
제주	0.1%	4.6%	66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1, 창업기업동향을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 업종별로는 충청남도가 전국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동산업 등은 낮은 수준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그림 7>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업종별 비중 비교('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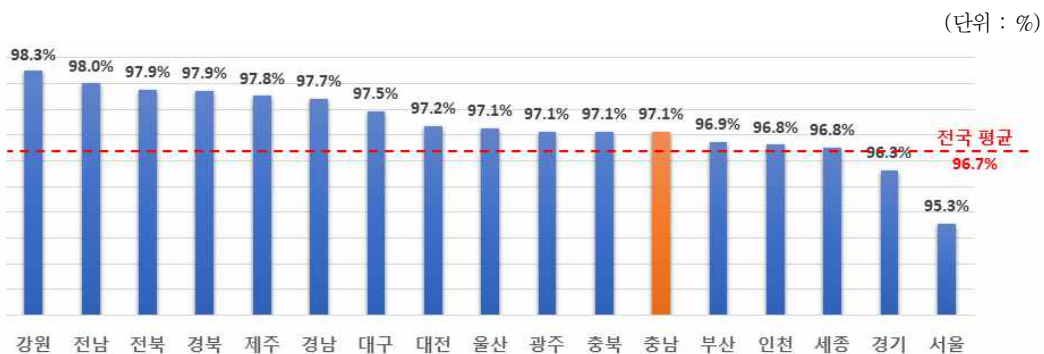
■ 충청남도 소기업 비중은 '19년 기준 97.1%로 타시도 대비 낮은 수준¹⁾

-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은 '19년 기준으로 155,515개로 전체 사업체 중 소기업 비중은 97.1%이며, 전국 소기업 비중 96.7% 대비 0.4%p 높은 수준이나 타시도 대비 약간 낮은 수준

<표 8> 지역별·규모별 사업체 현황('19; 개, %)

지역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 초과	소기업 비중
전국	3,874,410	3,285,574	3,748,004	121,636	3,869,640	4,770	96.7%
서울	775,390	637,437	738,815	34,822	773,637	1,753	95.3%
부산	271,829	232,568	263,309	8,279	271,588	241	96.9%
대구	198,994	173,858	193,942	4,954	198,896	98	97.5%
인천	193,083	163,210	186,917	5,985	192,902	181	96.8%
광주	114,143	97,138	110,799	3,222	114,021	122	97.1%
대전	110,648	94,377	107,528	3,034	110,562	86	97.2%
울산	81,616	69,878	79,279	2,180	81,459	157	97.1%
세종	16,305	13,376	15,776	503	16,279	26	96.8%
경기	878,395	723,504	846,014	31,414	877,428	967	96.3%
강원	131,811	116,373	129,515	2,245	131,760	51	98.3%
충북	122,057	105,043	118,477	3,392	121,869	188	97.1%
충남	160,215	137,804	155,515	4,451	159,966	249	97.1%
전북	136,467	119,517	133,576	2,779	136,355	112	97.9%
전남	142,357	125,768	139,517	2,722	142,239	118	98.0%
경남	215,912	191,878	211,282	4,429	215,711	201	97.9%
경북	264,301	231,336	258,222	5,886	264,108	193	97.7%
제주	60,887	52,509	59,521	1,339	60,860	27	97.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그림 8> 지역별·규모별 소기업 비중('19)

1) 전국사업체조사의 총 사업체 수와 중소기업기본통계의 총 사업체 수가 일부 상이하므로 해석 상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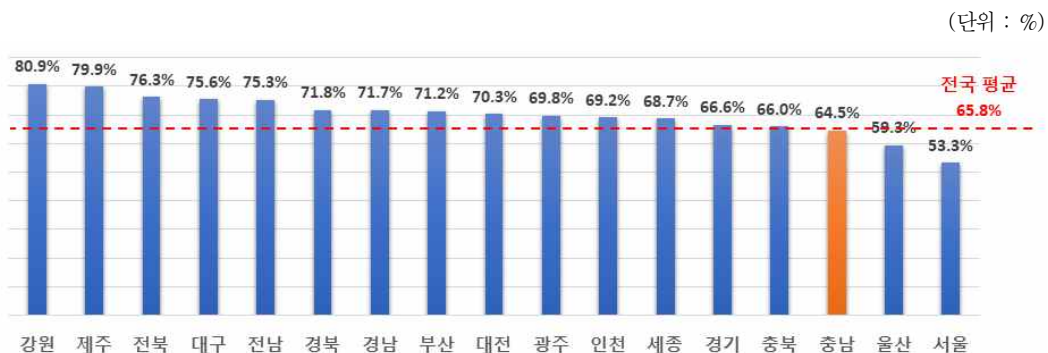
■ 충청남도 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19년 기준 64.5%로 타시도 대비 낮은 수준

-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9년 기준으로 491,716명으로 전체 사업체 중 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64.5%이며, 전국 소기업 종사자 비중 65.8% 대비 1.3%p 낮은 수준

<표 9> 지역별 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19; 명, %)

지역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 초과	소기업 비중
전국	17,934,571	6,617,527	11,797,105	4,276,745	16,073,850	1,860,721	65.8%
서울	4,235,790	1,231,556	2,258,634	1,307,453	3,566,087	669,703	53.3%
부산	1,146,426	465,009	816,575	278,568	1,095,143	51,283	71.2%
대구	753,313	338,888	569,231	160,066	729,297	24,016	75.6%
인천	873,497	329,804	604,134	200,107	804,241	69,256	69.2%
광주	487,364	192,858	340,306	112,824	453,130	34,234	69.8%
대전	454,925	181,074	319,595	106,650	426,245	28,680	70.3%
울산	440,397	135,023	261,314	81,075	342,389	98,008	59.3%
세종	75,886	27,248	52,126	16,137	68,263	7,623	68.7%
경기	4,423,085	1,575,198	2,943,740	1,040,452	3,984,192	438,893	66.6%
강원	457,887	225,904	370,371	72,841	443,212	14,675	80.9%
충북	573,577	211,919	378,277	131,397	509,674	63,903	66.0%
충남	761,864	278,795	491,716	168,602	660,318	101,546	64.5%
전북	505,838	230,275	385,735	90,553	476,288	29,550	76.3%
전남	546,104	247,737	411,392	95,072	506,464	39,640	75.3%
경남	863,059	379,181	619,445	155,491	774,936	88,123	71.8%
경남	1,125,164	464,713	806,374	221,608	1,027,982	97,182	71.7%
제주	210,395	102,345	168,140	37,849	205,989	4,406	79.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그림 9> 지역별 규모별 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19)

■ 충청남도 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19년 기준 18.7%로 타시
도 대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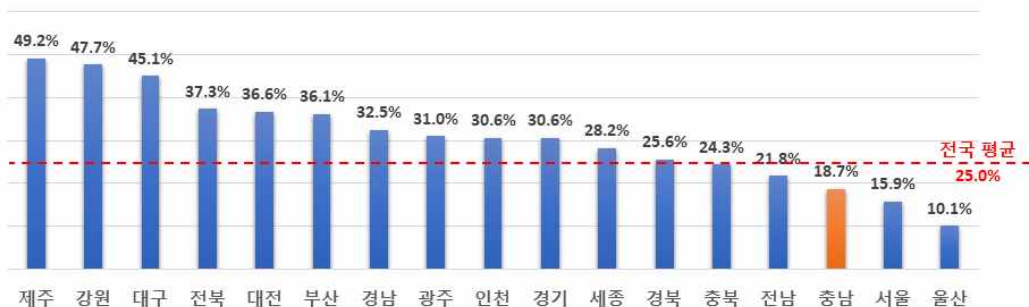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의 매출액은 '19년 기준으
로 520,318억원으로 전체 사업체 중 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18.7%이며, 전국 소기업 매출액 비중 25.0% 대비 6.3%p 낮은
수준

<표 10> 지역별·규모별 매출액 현황('19; 억원, %)

지역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초 과	소기업 비중
전국	50,006,344	6,805,236	12,484,496	14,071,325	26,555,821	23,450,523	25.0%
서울	15,251,916	1,382,827	2,418,702	3,782,733	6,201,435	9,050,481	15.9%
부산	2,278,257	458,625	823,260	942,207	1,765,467	512,791	36.1%
대구	1,294,796	336,189	583,584	517,565	1,101,150	193,647	45.1%
인천	2,191,436	356,880	670,613	673,698	1,344,312	847,124	30.6%
광주	1,114,862	193,435	345,784	366,885	712,669	402,193	31.0%
대전	846,001	175,386	310,029	297,669	607,698	238,303	36.6%
울산	2,420,402	123,590	245,184	275,038	520,222	1,900,180	10.1%
세종	172,520	25,010	48,723	59,452	108,175	64,345	28.2%
경기	11,226,614	1,783,342	3,434,790	3,669,551	7,104,341	4,122,272	30.6%
강원	639,592	170,227	305,066	223,244	528,310	111,282	47.7%
충북	1,646,860	212,011	401,007	491,784	892,791	754,069	24.3%
충남	2,778,837	277,042	520,318	646,095	1,166,412	1,612,425	18.7%
전북	991,309	212,221	369,859	327,022	696,881	294,428	37.3%
전남	1,782,728	223,127	389,002	303,571	692,573	1,090,156	21.8%
경북	2,552,950	367,668	653,726	614,939	1,268,665	1,284,285	25.6%
경남	2,527,193	431,014	822,233	779,231	1,601,464	925,730	24.3%
제주	290,070	76,642	142,615	100,642	243,257	46,813	49.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단위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그림 10> 지역별·규모별 소기업 매출액 비중('19)

■ 충청남도 사업체당 매출액은 '19년 기준 17.3억원으로 높은 수준

- 충청남도 사업체당 매출액은 '19년을 기준으로 17.3억원이며, 울산(29.7억원), 서울(19.7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표 11> 지역별·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 현황('19; 억원)

지역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초과
전국	12.9	2.1	3.3	115.7	6.9	4,916.3
서울	19.7	2.2	3.3	108.6	8.0	5,162.9
부산	8.4	2.0	3.1	113.8	6.5	2,127.8
대구	6.5	1.9	3.0	104.5	5.5	1,976.0
인천	11.3	2.2	3.6	112.6	7.0	4,680.2
광주	9.8	2.0	3.1	113.9	6.3	3,296.7
대전	7.6	1.9	2.9	98.1	5.5	2,771.0
울산	29.7	1.8	3.1	126.2	6.4	12,103.1
세종	10.6	1.9	3.1	118.2	6.6	2,474.8
경기	12.8	2.5	4.1	116.8	8.1	4,262.9
강원	4.9	1.5	2.4	99.4	4.0	2,182.0
충북	13.5	2.0	3.4	145.0	7.3	4,011.0
충남	17.3	2.0	3.3	145.2	7.3	6,475.6
전북	7.3	1.8	2.8	117.7	5.1	2,628.8
전남	12.5	1.8	2.8	111.5	4.9	9,238.6
경북	11.8	1.9	3.1	138.8	5.9	6,389.5
경남	9.6	1.9	3.2	132.4	6.1	4,796.5
제주	4.8	1.5	2.4	75.2	4.0	1,733.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 충청남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9년 기준 3.6억원으로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

- 충청남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9년을 기준으로 3.6억원이며, 울산(5.5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표 12> 지역별·규모별 종사자 1인당 매출액 현황('19; 억원)

지역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초과
전국	2.8	1.0	1.1	3.3	1.7	12.6
서울	3.6	1.1	1.1	2.9	1.7	13.5
부산	2.0	1.0	1.0	3.4	1.6	10.0
대구	1.7	1.0	1.0	3.2	1.5	8.1
인천	2.5	1.1	1.1	3.4	1.7	12.2
광주	2.3	1.0	1.0	3.3	1.6	11.7
대전	1.9	1.0	1.0	2.8	1.4	8.3
울산	5.5	0.9	0.9	3.4	1.5	19.4
세종	2.3	0.9	0.9	3.7	1.6	8.4
경기	2.5	1.1	1.2	3.5	1.8	9.4
강원	1.4	0.8	0.8	3.1	1.2	7.6
충북	2.9	1.0	1.1	3.7	1.8	11.8
충남	3.6	1.0	1.1	3.8	1.8	15.9
전북	2.0	0.9	1.0	3.6	1.5	10.0
전남	3.3	0.9	0.9	3.2	1.4	27.5
경북	3.0	1.0	1.1	4.0	1.6	14.6
경남	2.2	0.9	1.0	3.5	1.6	9.5
제주	1.4	0.7	0.8	2.7	1.2	10.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2. 주요 지자체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19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총 418만개 이며, 이중 충청남도도는 18만개, 천안시 5만개, 아산시 2만개, 홍성군은 9천개 사업체 이며, 천안시는 충청남도 전체 사업체의 30.0%, 아산시는 12.8%, 홍성군은 4.9%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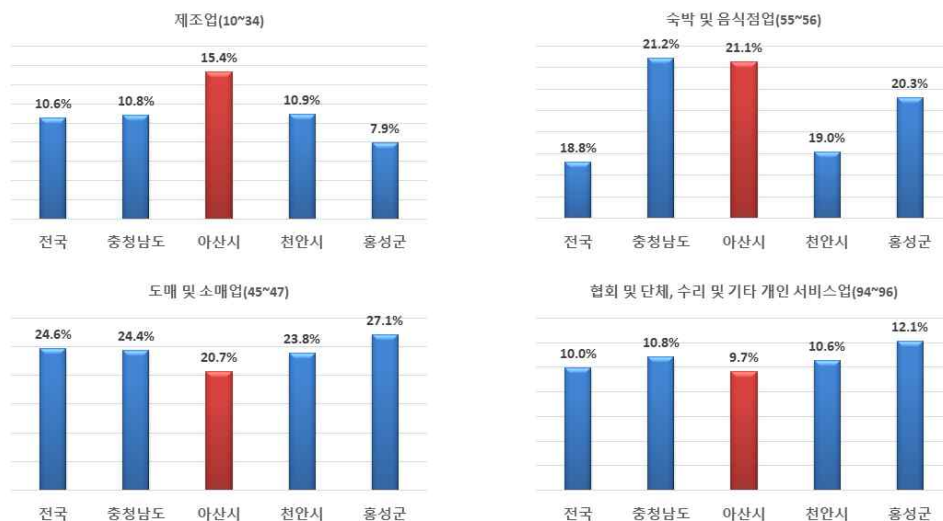
- 천안시는 전국 대비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0.3%p, 0.2%p, 0.6%p 높은 반면, 도·소매업은 △0.8%p 비중이 낮음
- 아산시는 전국 대비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각각 4.8%p, 2.3%p 높은 반면, 도·소매업(△3.9%p)과 개인서비스업(△0.3%p) 비중이 낮음

- 홍성군은 전국 대비 제조업에서만 △2.7%p 비중이 낮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은 각각 1.5%p, 2.5%p, 2.1%p 비중이 높음

<표 13> 지역별 사업체 현황 비교('19년 기준, 개)

시도	전국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총계	4,176,549	176,643	22,655	52,993	8,622
농업,임업및어업(01~03)	4,522	512	37	49	42
광업(05~08)	1,776	95	10	4	6
제조업(10~34)	440,766	19,050	3,480	5,795	681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3,119	176	17	25	5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6~39)	9,423	619	68	118	28
건설업(41~42)	146,293	7,218	775	2,075	418
도매및소매업(45~47)	1,028,323	43,064	4,686	12,616	2,339
운수및창고업(49~52)	409,288	14,975	2,129	4,597	670
숙박및음식점업(55~56)	785,706	37,500	4,786	10,088	1,751
정보통신업(58~63)	45,303	892	106	335	52
금융및보험업(64~66)	43,555	1,658	169	510	109
부동산업(68)	168,481	5,411	818	2,272	20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118,129	3,492	388	1,423	16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4~76)	73,282	3,250	422	1,203	15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4)	12,570	762	54	99	53
교육서비스업(85)	193,790	7,065	882	2,551	33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150,659	6,525	963	1,939	321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124,621	5,243	673	1,703	235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416,943	19,136	2,192	5,591	1,045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그림 11> 전국 대비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사업체 비중 비교('19)

<표 14>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 비중 비교('19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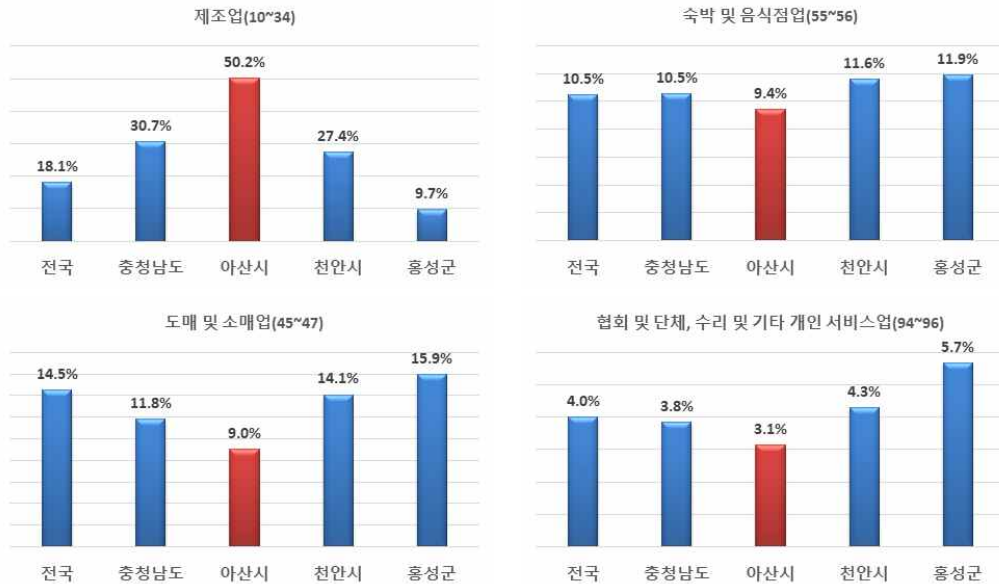
시도	전국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농업,임업및어업(01~03)	0.1%	0.3%	0.2%	0.1%	0.5%
광업(05~08)	0.0%	0.1%	0.0%	0.0%	0.1%
제조업(10~34)	10.6%	10.8%	15.4%	10.9%	7.9%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0.1%	0.1%	0.1%	0.0%	0.1%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6~39)	0.2%	0.4%	0.3%	0.2%	0.3%
건설업(41~42)	3.5%	4.1%	3.4%	3.9%	4.8%
도매및소매업(45~47)	24.6%	24.4%	20.7%	23.8%	27.1%
운수및창고업(49~52)	9.8%	8.5%	9.4%	8.7%	7.8%
숙박및음식점업(55~56)	18.8%	21.2%	21.1%	19.0%	20.3%
정보통신업(58~63)	1.1%	0.5%	0.5%	0.6%	0.6%
금융및보험업(64~66)	1.0%	0.9%	0.7%	1.0%	1.3%
부동산업(68)	4.0%	3.1%	3.6%	4.3%	2.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2.8%	2.0%	1.7%	2.7%	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4~76)	1.8%	1.8%	1.9%	2.3%	1.8%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4)	0.3%	0.4%	0.2%	0.2%	0.6%
교육서비스업(85)	4.6%	4.0%	3.9%	4.8%	3.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3.6%	3.7%	4.3%	3.7%	3.7%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3.0%	3.0%	3.0%	3.2%	2.7%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10.0%	10.8%	9.7%	10.6%	12.1%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 ‘19년 기준 전국 총 종사자는 2,272만명 이며, 이중 충청남도는 97만명, 천안시 26.6만명, 아산시 15.9만명 종사하며, 특히 아산시는 종사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

- 천안시는 전국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9.3%p 높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슷함
- 아산시는 전국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32.0%p 높은 반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5.5%p, 숙박·음식점 △1.0%p, 개인서비스업 △0.9%p 낮게 나타남
- 홍성군은 전국 대비 제조업에서만 △8.4%p 비중이 낮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은 각각 1.4%p, 1.4%p, 1.7%p 비중이 높음
-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은 전국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한 수치로, 통계청에서 종사자 정보를 일부 제외하여 제공하

므로 실제에 비하여 85~90% 수준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그림 12> 전국 대비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종사자 비중 비교('19)

<표 15> 지역별 종사자 현황 비교('19년 기준, 명)

시도	전국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총계	22,723,272	973,944	158,620	265,766	35,703
농업,임업및어업(01~03)	43,920	4,662	185	225	268
광업(05~08)	14,887	763	37	-	-
제조업(10~34)	4,123,817	299,436	79,595	72,756	3,454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67,526	6,610	18	101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6~39)	114,085	6,878	253	773	81
건설업(41~42)	1,504,466	57,902	7,444	13,739	3,458
도매및소매업(45~47)	3,289,652	114,902	14,297	37,444	5,692
운수및창고업(49~52)	1,155,965	39,701	5,456	11,625	1,232
숙박및음식점업(55~56)	2,384,828	102,408	14,983	30,793	4,251
정보통신업(58~63)	606,964	6,647	443	1,438	325
금융및보험업(64~66)	715,399	19,227	1,928	5,501	1,210
부동산업(68)	537,841	14,190	2,086	6,106	58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1,132,049	22,584	1,668	8,247	60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4~76)	1,192,036	35,416	3,273	15,450	74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4)	768,733	35,093	1,467	2,590	4,080
교육서비스업(85)	1,672,443	70,440	9,980	21,312	3,07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2,033,034	83,707	8,576	21,505	4,12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458,555	15,947	1,966	4,742	498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907,072	37,431	4,965	11,419	2,028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주 :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값으로 실제와 상이.

<표 16> 지역별, 업종별 종사자 비중 비교('19년 기준, %)

시도	전국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농업,임업및어업(01~03)	0.2%	0.5%	0.1%	0.1%	3.1%
광업(05~08)	0.1%	0.1%	0.0%	-	0.0%
제조업(10~34)	18.1%	30.7%	50.2%	27.4%	40.1%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0.3%	0.7%	0.0%	0.0%	0.0%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6~39)	0.5%	0.7%	0.2%	0.3%	0.9%
건설업(41~42)	6.6%	5.9%	4.7%	5.2%	40.1%
도매및소매업(45~47)	14.5%	11.8%	9.0%	14.1%	66.0%
운수및창고업(49~52)	5.1%	4.1%	3.4%	4.4%	14.3%
숙박및음식점업(55~56)	10.5%	10.5%	9.4%	11.6%	49.3%
정보통신업(58~63)	2.7%	0.7%	0.3%	0.5%	3.8%
금융및보험업(64~66)	3.1%	2.0%	1.2%	2.1%	14.0%
부동산업(68)	2.4%	1.5%	1.3%	2.3%	6.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5.0%	2.3%	1.1%	3.1%	7.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4~76)	5.2%	3.6%	2.1%	5.8%	8.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4)	3.4%	3.6%	0.9%	1.0%	47.3%
교육서비스업(85)	7.4%	7.2%	6.3%	8.0%	35.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8.9%	8.6%	5.4%	8.1%	47.8%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2.0%	1.6%	1.2%	1.8%	5.8%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4.0%	3.8%	3.1%	4.3%	23.5%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주 :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값으로 실제와 상이.

■ 주요 지자체 업종별 밀집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심성 지수 (CI, Centrality Index)를 분석한 결과, 아산시는 충청남도 내에서 천안시 대비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중심성 지수가 낮은 수준

- 중심성 지수는 지역별 업종의 밀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밀집도가 높을수록 중심성 지수가 높으며, 다음 식과 같음²⁾

$$CI = \frac{e_i}{E_i}$$

* 여기서 E_i는 충청남도의 i산업의 종사자 수를 의미하며, e_i는 목표지역 내 i산업의 종사자 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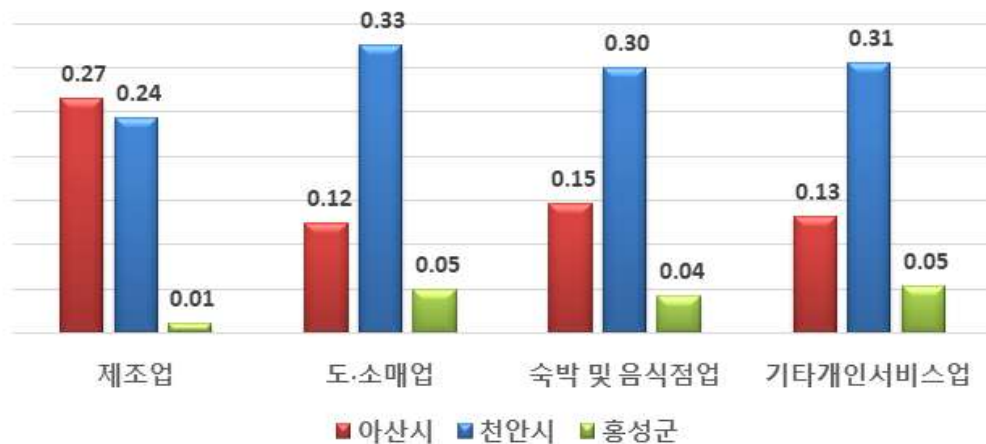
2) 이병길(2013), “포칼 입지계수를 이용한 중심지 성숙도 평가,” 한국측량학회지, 31(3), 221-228.

<표 17>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의 중심성 지수 비교

시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농업,임업및어업(01~03)	0.04	0.05	0.06
광업(05~08)	0.05	-	-
제조업(10~34)	0.27	0.24	0.01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0.00	0.02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6~39)	0.04	0.11	0.01
건설업(41~42)	0.13	0.24	0.06
도매및소매업(45~47)	0.12	0.33	0.05
운수및창고업(49~52)	0.14	0.29	0.03
숙박및음식점업(55~56)	0.15	0.30	0.04
정보통신업(58~63)	0.07	0.22	0.05
금융및보험업(64~66)	0.10	0.29	0.06
부동산업(68)	0.15	0.43	0.0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0.07	0.37	0.0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4~76)	0.09	0.44	0.02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4)	0.04	0.07	0.12
교육서비스업(85)	0.14	0.30	0.0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0.10	0.26	0.0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0.12	0.30	0.03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0.13	0.31	0.05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주 :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값으로 실제와 상이.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주 :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값으로 실제와 상이.

<그림 13>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의 주요 업종별 중심성 지수 비교

■ 충청남도 지역 내 특정산업의 특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산 시에서 입지계수가 1이상인 특화산업은 제조업만 해당

-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는 특정 지역 내 특정 산업의

특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수로, 입지계수가 1.0 이상은 특정 지역 내 특정 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 대비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특화되었다고 판단하며, 다음 식과 같음³⁾

$$LQ_i^g = \frac{e_i^g / e^g}{E_i / E}$$

* 여기서 e_i^g 는 해당 지역 내 i산업의 종사자 수, e^g 는 해당지역 내 모든 산업의 종사자 수, E_i 는 전국 i산업의 종사자 수, E는 전체 종사자 수를 의미

- 반면, 천안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숙박·음식점업(1.1), 기타개인 서비스업(1.1), 도·소매업(1.0) 등에서도 입지계수가 1이상인 특화산업
- 홍성군은 공공행정(3.4), 건설업(1.5), 보건업(1.3) 등이 입지계수가 1이상인 특화산업

<표 18>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의 입지계수 비교

시도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농업,임업및어업(01~03)	2.5	0.6	0.4	3.9
광업(05~08)	1.2	0.4	-	-
제조업(10~34)	1.7	2.8	1.5	0.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2.3	0.0	0.1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6~39)	1.4	0.3	0.6	0.5
건설업(41~42)	0.9	0.7	0.8	1.5
도매및소매업(45~47)	0.8	0.6	1.0	1.1
운수및창고업(49~52)	0.8	0.7	0.9	0.7
숙박및음식점업(55~56)	1.0	0.9	1.1	1.1
정보통신업(58~63)	0.3	0.1	0.2	0.3
금융및보험업(64~66)	0.6	0.4	0.7	1.1
부동산업(68)	0.6	0.6	1.0	0.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0.5	0.2	0.6	0.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4~76)	0.7	0.4	1.1	0.4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4)	1.1	0.3	0.3	3.4
교육서비스업(85)	1.0	0.9	1.1	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1.0	0.6	0.9	1.3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0.8	0.6	0.9	0.7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1.0	0.8	1.1	1.4

자료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개편, 재가공.

주 :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값으로 실제와 상이.

3) 이병길(2013), “포칼 입지계수를 이용한 중심지 성숙도 평가,” 한국측량학회지, 31(3), 221-228.

제3장 여건과 전망

제1절 서비스산업 혁신과 서비스업 피해 증가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2.0

제1절 서비스산업 혁신과 서비스업 피해 증가

1. 서비스 산업 혁신의 중요성 증가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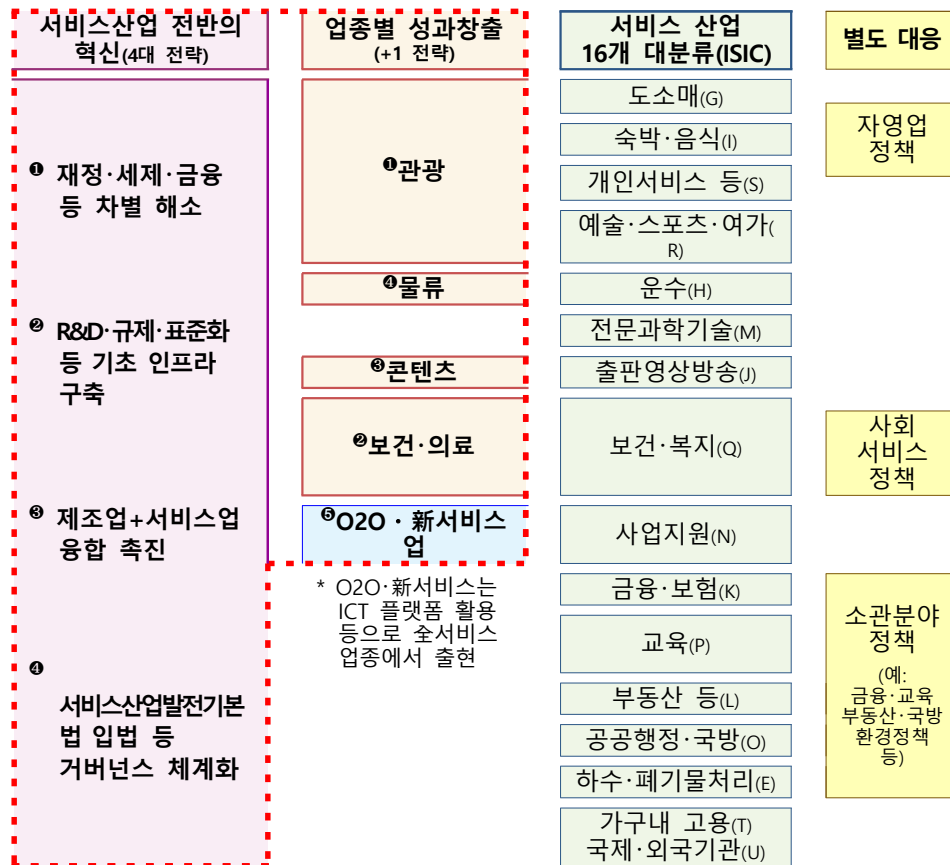
- 정부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9년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을 발표
- 경제성장 고도화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형태
- 이에 반해 한국은 '02년 이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어 경제의 서비스화 필요
- 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산업 16개 대분류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 정책을 제시
-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법령·제도 개편
- 서비스 기업의 ICT 활용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
- 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프로세스, 물류관리 등을 지원
- 서비스업 업종별 협회 네트워크 등을 통해 컨설팅 및 자금지원 병행

4) 관계부처 합동(2019),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경제활력대책회의, 19-17.

<표 19>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솔루션 사례(안)

분야	솔루션	지원 예시 및 기대효과(안)
❶ 프로세스 관리	RPA (로봇자동화)	· 단순문서 작성·처리, 정보 등록 등 표준화된 단순 반복 업무 → 챗봇(Chatbot) 대체 등 자동화
❷ 물류관리	WMS (창고관리)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정 구매량 및 재고량 산정, 운송관리 등 최적 물류계획 수립 → 물류비 절감
❸ 고객관리	CRM (고객관리)	·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절차를 줄이고 고객참여 및 만족도 증대
❹ 자동화	IoT (사물인터넷)	· 각종 시설관리시 설비상태, 운전현황,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 불량률 감소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경제활력대책회의, 19-17.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경제활력대책회의,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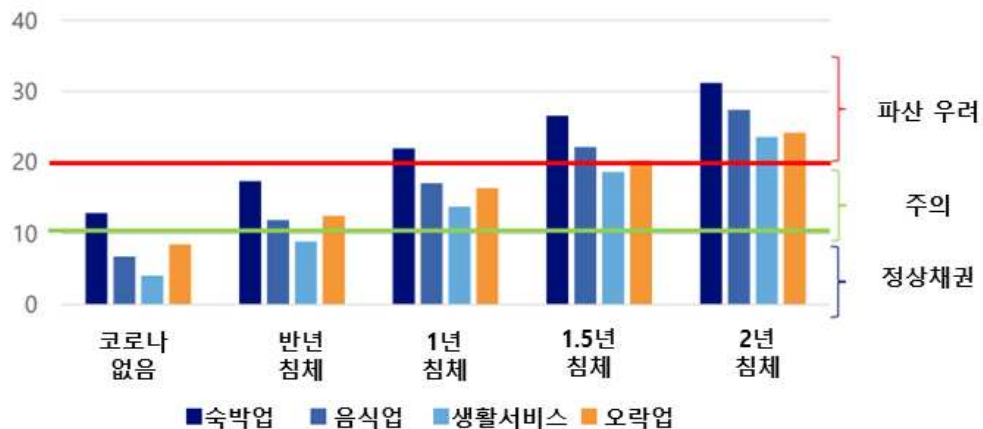
<그림 14>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중점 대상

2. 코로나 19로 인한 서비스업 피해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피해가 집중⁵⁾⁶⁾
- 정부는 신용보증 대출 지원, 3년간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제공하나,
- 코로나19 지속 시, 2년 이내 이들 업종의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잃어버린 XX년’의 가능성 대두

* 대인 30% 경제(対人3割経済) : 대인접촉 제한을 30%로 고정하여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

부채상환기간(년)



자료 : 梅屋 真一郎 (20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日本経済と雇用に及ぼす影響, 野村総合研究所.

주1 중소기업자가 대출로 매출 감소에 따른 유지 비용을 충당한다고 가정하고 노무라 종합 연구소에서 추정하며, 주요 가정은 매출액 70% 감소, 영업이익+감가상각비로 상환한다는 조건

주2 금융 기관의 채무자 구분 기준에 따라 상황기간 10년 이하를 정상 채권으로 가정, 10~20년 미만은 주의, 20년 이상은 파산 우려로 가정

<그림 15>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중소 기업자의 부채상환기간

5) Bartik, Alexander W., Marianne Bertrand, Zoe B. Cullen, Edward L. Glaeser, Michael Luca, Christopher T. Stanton(2020), How Are Small Businesses Adjusting to COVID-19? Early Evidence from a Survey, NBER Working Paper No. 26989.

6) Brimmer, A., Chin, V., Hayden, P., Thomas, T., Turpitz, A., & Zho, Y. (2020), Beyond the Curve How to Restart in the Wake of COVID-19, Boston Consulting Group.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성장 · 혁신방안2.0

1.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증가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경제정책은 고용, 가구소득, 기업생존에 초점⁷⁾
 - 초기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 PPP)과 같은 자금지원 중심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⁸⁾
 - 경제정책에 있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정책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 필요⁹⁾
-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의 필요성 증가
 -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의 회생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¹⁰⁾
 - 노무라종합연구소(2020)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리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생활양식 2.0*으로의 전환을 제시
- * 소비자, 산업, 지역에 걸쳐 디지털 사회자본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숙박, 음식,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 이후 재성장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 증가¹¹⁾
 - OECD(2020)는 디지털화를 비롯한 산업구조가 가속화되고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기반의 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를 통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¹²⁾

7) Baily, M. N.(2020), How to Boost Long-run Growth after COVID-19, Brookings.

8) Bartik, Alexander W., Marianne Bertrand, Zoe B. Cullen, Edward L. Glaeser, Michael Luca, Christopher T. Stanton(2020), How Are Small Businesses Adjusting to COVID-19? Early Evidence from a Survey, NBER Working Paper No. 26989.

9) IMF(2021), World Economic Outlook.

10) 経済同友会(2020), コロナ危機を契機としたデジタル変革の加速に向けて.

11) 経済同友会 (2020), コロナ危機を契機としたデジタル変革の加速に向けて.

- IMF(2020)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완화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성장편익 공유 등을 제시¹²⁾
-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APEC, 2019)¹⁴⁾
-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수용에 따라 부가가치 25%, 생산성 16% 향상¹⁵⁾
- 디지털 기술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 향상에 기여¹⁶⁾

2. 디지털뉴딜과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2.0

-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한편, 구조적 대전환 대응의 이중 과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판 뉴딜」을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적 특징은 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② 그린 경제로의 전환 ③ 양극화 심화에 따른 안정망 강화이며,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

12) OECD(2020), OECD Economic Outlook.

13)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14) APEC (2019), SME Financ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 a Globalized Economy, 2019 APEC SME Ministerial Statement.

15) Karr, J. Loh, K. and Wirjo, A. (2020), Supporting MSMEs' Digitalization Amid COVID-19, APEC Policy Support Unit Policy Brief, 35, APEC.

16) Grewal, D., Noble, S. M., Roggeveen, A. L., & Nordfalt, J. (2020), The Future of In-store Technology,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8(1), 96-113.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2020.

<그림 16> 한국판 뉴딜의 구조

- 「한국판 뉴딜」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을 발표하고 비대면·디지털화로의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¹⁷⁾
 - 전통시장·상점 등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보급 및 확산, 라이브커머스 등의 진출 지원,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 공방보급,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를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및 결제 단말기 보급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간편결제 확산을 통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을 제시

17) 이철성(2020), 디지털 뉴딜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대전세종포럼, 75, 7-28.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그림 17>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 2.0 추진방향

□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업 중심의 생산성 향상 필요

-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서도 장기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생산성 향상 필요¹⁸⁾

18) Baily, M. N.(2020), How to Boost Long-run Growth after COVID-19, Brookings.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정책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중점 추진정책

제2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중점 추진정책

1.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소상공인 육성

- (스마트 상점) 음식업, 소매업, 미용실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IoT, AR·VR,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도입 지원

<표 20> 스마트 시범상가별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예산(국비)	비고
복합형 (40곳)	- 스마트기술: 47개 상점 × 455만원 * 선도형점포: 3개 상점 × 1,400만원 - 스마트오더: 최대 150개 상점 × 35만원	약 3.08억원	40곳 × 200개 = 8,000개 상점
일반형 (60곳)	- 스마트오더: 최대 150개 상점 × 35만원	약 0.53억원	60곳 × 150개 = 9,000개 상점
사이니지 (15곳)	- 디지털 사이니지 : 2식 × 2,500만원 * 1개 상가당 사이니지 2식 지원	0.5억원	15곳 × 2개 = 30개 사이니지
계 (100곳)	총 17,000개 상점(스마트기술 2,000개, 스마트오더 15,000개)		

* 스마트기술 도입 상점(선도형점포 포함)에는 30% 자부담 부과

* 스마트오더는 상가별 최소 80개 이상 상점기준으로 신청하되, 최대 150개까지 지원

<표 21> 업종별 스마트상점 조성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예산(국비)	비고
업종별 (5곳)	- 스마트기술: 100개 상점 × 455만원 - 스마트오더: 최대 500개 상점 × 35만원	약 6.3억원	5곳 × 600개 = 3,000개 상점
계	총 3,000개 상점(스마트기술 500개, 스마트오더 2,500개)		

* 스마트기술 도입 상점에는 30% 자부담 부과

* 스마트오더는 협단체별 최소 100개 이상 상점기준으로 신청하되, 최대 500개까지 지원

- (O2O 플랫폼) 소상공인의 O2O 플랫폼 입점 경감을 위해 배달수수료, 광고비, 리플릿 제작비용, 홍보알림 지원 등 ('21, 1.6만개)
- (온라인 쇼핑몰) 전용 기획전 개설('21, 400회), 온라인 전담셀러(MD) 1:1로 매칭('21, 100명, 1만개 상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21, 4,000개)

2.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 (특성화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상시 온라인 판매 인프라 구축 및 전통시장 디지털(VR)지도 제작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
- * 온라인 전용관 내 440여개 점포 입점(88개시장*5개 점포 이상)
- ** 시장정보(점포·주차장 등)를 포함한 VR지도를 100곳 제작, 민간 플랫폼과 연계 운영
- (청년상인 온라인시장 진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명절·이벤트 온라인 기획전, 온라인 전용 판매관 운영 등(15억원 이내, 600명 이내)
-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지원) 온라인 입점대행료 및 상품소개 이미지 제작, 초기 홍보·프로모션 비용 등 지원
- (디지털매니저 지원) 디지털 역량이 낮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민간 전문가·기관 그룹을 매칭하여 단계별 온라인판로 확대 지원
- (온라인 특별전) 온라인 입점 전통시장 상품의 특별 프로모션
- * 상·하반기 2회 시행, 무료배송, 경품, 쇼핑라이브(30회), 구매인증 이벤트 진행
-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모바일 상품권(QR결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무선 복합결제 단말기 보급 (~'21. 점포 6만개)

3.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 추진

- 하나의 상권(전통시장·상점가)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상점·슈퍼, 스마트공방 등 디지털 기술을 집적하여 시너지 창출

※ 도입계획(누계) : ('21) 1곳 → ('22) 3곳 (상권별 3년간 50억원 내외 지원)

- (디지털 특화거리) 개별 점포(업종별) 스마트 기술* 도입, 상권 주요지점 지능형 CCTV 및 사이니지 설치,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 (온라인 판매) 모바일 앱을 통한 배송체계 구축, '가치샵시다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판매
- (복합체험판매 라운지) K-POP, 문화, 체험, 제품판매 등이 결합된 문화복합형 마케팅 전용매장 구축

4. 코로나 극복 재기지원

-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소상공인 폐업 증가 예상
 -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등 영업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
 -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던 (예비)소상공인의 재기 곤란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확대**,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신설**

* (자격) 경영지도사 등 (내용) 폐업전략(행정절차, 집가시설 처분 등), 채무조정화생파산 전략

** (자격) 직업상담사 (내용)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MBTI, DISK,애니어그램 등) 실시 및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업 연계

- (점포철거) 행정처리 + 철거경비 2Track 철거 지원
 - 행망활용으로 신청·정산 서류 간소화(3종)하고,
 - 철거절차 안내→신청서류 등록→지급서류 준비까지 현장 밀착 지원
-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채무해소 Fast-Track 구성을 통해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300건)

<표 22>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역	내용	규모(건)	예산(백만원)
폐업	①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신설	7,000	6,300
	② 점포철거지원	-철거비 지원	7,000	14,000
	③ 법무지원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상담 -채무해소FastTrack 회생·파산 소송지원 시범	4,000	2,400
취업	④ 취업교육	-기업·대학 연계 특화 교육 확대	13,000	16,900
	⑤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자	8,000	8,000
업종 전환 ·재창업	⑥ 교육·멘토링	-재창업 역량 강화 교육(5,000건) * 채무소각 신설 직무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프로젝트 컨설팅(1,000건)	6,000	7,500
	⑦ 사업화 지원 신설	-공유주방, 맞춤형 사업화(온라인판로, 브랜드, 마케팅), 맞춤형 사업화 및 친환경 경영지원	1,200	12,000

5.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간소화

- 사회적, 경제적 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반면, 임대료·인건비 등과 같은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점포운영 현금 흐름 이슈가 발생
 - 전미경제연구소(NBER, '20.4)에 따르면, 미국 소기업의 70% 이상이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에 대해 지원의사가 있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지원자격으로 인해 자금신청에 어려움
 - 따라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
- * 독일 연방 및 지방정부는 먼저 코로나 구제지원(Rettungsbeihilfe Corona: Soforthilfe I) 프로그램을 실시 : 고용인원별 필요한 최대운영비를 설정하여 지급하고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운영비를 산출하여 운영비 정산
 - 한국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제2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방향

1. 소상공인 지원 기본 방향

■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 (서비스 품질 향상) 전통시장·상점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 혁신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 체험 공간 마련 및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개별 단위가 아닌 전통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소상공인은 투자 여력이 적은 편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앙정부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유도

2. 주요 사업 제안

■ 사업 1 : 서비스 표준화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표준화 가이드 마련 및 교육
-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에 따라 관련 표준 사례 및 기술을 검토하여 지역 내 적용방안 모색

표준사례	신선물류 정온 포장	
내용	▶식품 등 온도민감성 제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콜드체인용 포장시스템(용기, 소재, 냉매)의 성능 시험방법, 제품군에 따른 보존환경 및 표기사항 등 표준화	
기대효과	▶산발적인 신선물류 포장기술 개발 상황에서 선제적 품질기준을 제공,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국내 물류기업의 특수냉동포장 등 고부가가치 배송시장 진출 마중물 제공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

<그림 18> 서비스 표준화 예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역 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강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매출증대, 경영성과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전문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 제공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2,000명 내외(오프라인 교육 기준)
- 예산 : 108억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바우처 방식의 전문기술 습득교육: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 메뉴 개발, 최신 전문기술 교육 지원
※ 교육비 지원: 민간 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업종별 대상별 수준별로 매우 정기적인 시간대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쌍방향 교육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바채널) : <http://edu.sbiz.or.kr>, 무료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000건
- 예산 : 80억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컨설팅 지원분야 중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는 방식으로 제공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2021년 공단 지원시책 소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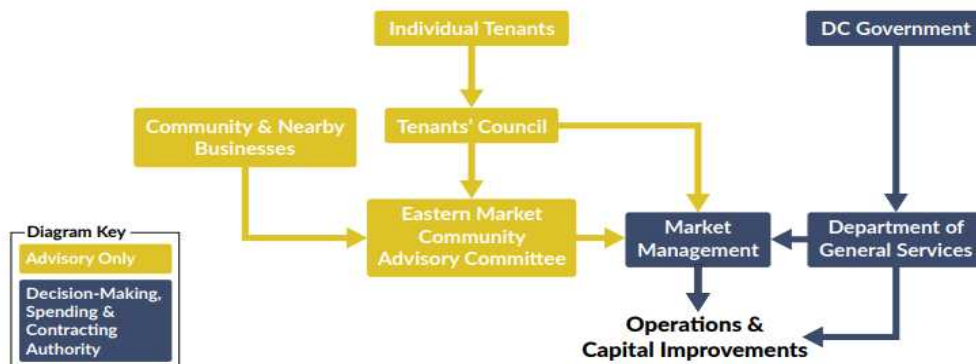
<그림 19>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지원사업

■ 사업 2 : 서비스 혁신

- 전통시장·상점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소상공인들이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을 이해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향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 서비스 품질 체험과 함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서비스에 대한 종합 체험 공간으로 구성
-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이 없어 광역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 검토

■ 사업 3 : 충청남도 상업종합계획 수립

- 충청남도 차원의 광역 종합계획 및 각 지자체 전통시장·상점가를 중심으로 중장기 상업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상업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전략을 마련
- 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리활동과 함께 주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상권 발전의 기초를 마련
 - 일본에서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미국에서는 CBA(Community Benenfits Agreement),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등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유도
 - 기존 상인회 중심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상권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활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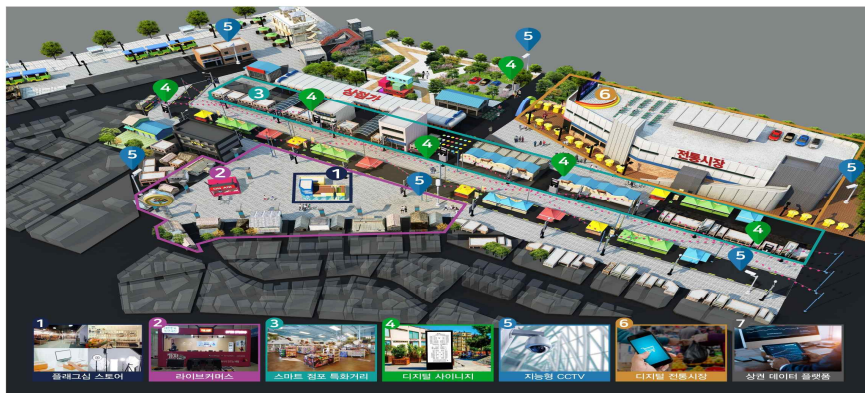
자료 : Eastern Market(2020), Eastern Market Strategic Plan 2020.

<그림 20> 미국 Eastern Market의 전략계획 수립 지배구조

■ 사업 4 :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고객 경험 향상 및 지역 명소화 추진
- 전통시장·상점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집적하고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업 시너지 창출

- 디지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스마트 기술 기반의 안전하고 편안한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 전통시장·상점가 내 복합체험 판매대 라운지를 마련하여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문화,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명소화
-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지원 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하여 점포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사업 간 시너지 창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그림 21>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성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적용·보급하여, 서비스·마케팅을 혁신하는 '스마트상점' 확산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스마트상가 100곳 내외(스마트상점 20,000여개)
- 예산 : 220억원

지원대상

- 선정된 스마트 상가 내 소상공인
- 도·박·기·계 및 사행성 관련업, 약국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불가

지원내용

- 스마트 기술(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하는 복합형 상가 혹은 스마트 오더를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 형태로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복합형 상가	스마트기술	스마트상점	500만원 이내
일반형 상가	-	스마트오더	30만원 이내

<참고자료>

이미지 자료

- 서빙 로봇
- AI무인스캐너
- 스마트오더

우수사례

스펠라헤어(충남 홍성, 박은정 대표)

스마트 미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원하는 스타일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 만족도 증가 및 약 20% 매출 증가

참고링크

스마트상점 모델상 홍보영상(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0xfmq0e_8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2021년 공단 지원시책 소개자료.

<그림 22>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

- 정부정책 연계를 위하여 '22년 선정 예정인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활용(2곳 선정 예정)
- 단, 디지털 상권르네상스는 시범사업으로 향후 추진여부가 불투명하여, 대안으로 '22년까지 총 30곳을 지정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23년 이후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율상권구역 사업을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설계하여 정책변경에 유연하게 대응 필요

- 상권르네상스 사업 및 자율상권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하나의 집합체로 구성하여 지역 내 서비스 거점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특별법, 지역상권법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구역별 60억~120억 지원)
- 상권르네상스 및 자율상권사업을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준비하여 시범사업 종료 시,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각 지자체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2021년 공단 지원시책 소개자료.

<그림 23> 상권르네상스 사업

■ 사업 5 :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판로 지원

- 서비스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 교육 및 O2O플랫폼 입점 지원
- 민간플랫폼, 공공플랫폼을 서비스업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다변화 지원
- O2O플랫폼 활용시 발생하는 배달대행비, 홍보비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활용

- ‘21년부터는 기존 「O2O 검색광고 플랫폼 입점 지원」을 확장하여, 공공배달앱을 비롯하여 지자체와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 가능한 플랫폼으로 연계 가능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교육]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교육·상담을 통해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활용 역량을 제고

[O2O]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O2O 플랫폼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대상	내용
[교육] 19억 원, 10,000명 [O2O] 48억 원, 16,000개사 * O2O란? (Online to Offline) -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님과 소비자들을 온라인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예: 배달앱, 주문·배송 등)	[교육]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O2O] O2O 서비스 활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교육]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실습교육으로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방법 및 판매 전략 등 제공 [O2O] 플랫폼 배달 대행비, 이용고객 홍보비, 광고비, 앱 메인 노출 지원

<참고자료>

이미지 자료

(O2O) 모바일 전단 제작지원

(O2O) 플랫폼 광고노출 지원

(O2O) 교육 수강 영상

우수사례

따복따복(울산시 동구, 이정희 대표)

코로나19로 매출이 약 60% 이상 감소했으나 O2O 지원사업으로 배달판매를 적극 확장하여 배달 건수는 월평균 250건에서 월평균 400건으로 약 38% 증가했으며, 매출은 월 300만원 가량 증가

따복따복
울산 동구 따복따복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2021년 공단 지원시책 소개자료.

<그림 24>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제5장 제언

■ 본 연구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의 피해현황과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
의를 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함

■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
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충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높게 평가 받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충남의 주요 상권에 대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필요에 따라 ‘(가칭)지역상권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신규조례의 제정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국가 정책은 상인회 등이 구성된 정형화된 상권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일본의 경우 도시의 건강한 발전과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역 사업환경 만들기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충남도 및 시군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국가 정책과 연계한 충남도 정책사업 강화] 지역상권 및 소
상공인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모니터링
및 도입 가능한 정책을 적극 활용

- 정부의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물론, 최근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적극 추진 등도 요구됨
- 더 넓게는 서비스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등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교육 및 O2O플랫폼 입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등을 강화하여야 함

-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동향 및 정책사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출연기관(충남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등)의 협력체계가 필요함

■ [상인역량 및 고객서비스 강화] 지역상권 육성 및 디지털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서비스 혁신이 요구됨

-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표준화’와 더불어 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중앙의 컨설팅과 차별된 지방정부의 컨설팅도 함께 개발하고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효과적인 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상가 매니저 파견 교육’ 등 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개발이 요구됨

■ [준비된 진입과 체계적 출구전략 마련]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창업과 출구전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 창업준비 과정을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하여 창업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기술을 습득 후, 사업자 등록 등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지금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쉽게 자영업 등에 진입하고, 사업폐쇄 등 퇴출 시에는 오히려 어려운 구조여서, 과도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가중되는 경우도 있음

※ 본 보고서에 인용 및 참조 자료는 해당 부분에 표시해 두었으며, 그 밖의 자료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인용 시에는 꼭 해당 원자료 확인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 후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주요 보도자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보호” 충남도의의회 연구모임 발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남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연구 모임이 발족됐다. 충남도의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조승만 의원)’은 25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 연구 모임의 주요 활동 계획이다.

조승만(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았다. 방한일(예산1·국민의힘)·황영란(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모였다.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책과 향후 모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51 X 147 mm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연구모임 발족

방원기 기자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모임은 조승만 의원(민주·홍성1)이 대표를 맡았다. 회원은 방한일(국민의힘·예산1)·황영란(민주·비례) 의원과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9명이다.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책과 향후 모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충남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모색

조승만 의원 대표 연구모임 발족...소상공인 피해 현황 확인, 대응책 논의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승만 의원)은 25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았고 방한일(예산1·국민의힘)·황영란(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책과 향후 모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모색

조승만 의원 대표 연구모임 발족...소상공인 피해 현황 확인, 대응책 논의

양승선 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방한일·황영란 의원과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책과 향후 모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코로나 고통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모색

홍석원 기자 001hong@dailycc.net



조승만 충남도원이 지난 8일 의회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을 열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승만 의원)'은 지난 8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완성과 더 나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포스트코로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청취하고 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박차

조승만 의원 대표 연구모임 2차 회의... 연구성과 발간·배포 예정

양승선 기자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박차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은 8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완성과 더 나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포스트코로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청취하고 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승만 의원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박차

박보성 기자

조승만 의원 대표 연구모임 2차 회의... 연구성과 발간·배포 예정



▲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승만 의원)'은 8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완성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포스트코로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청취하고 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